

複合機能구사할수있게 觀光地와연계해서開發

鄭 煉 弘 (相瓦產業 토목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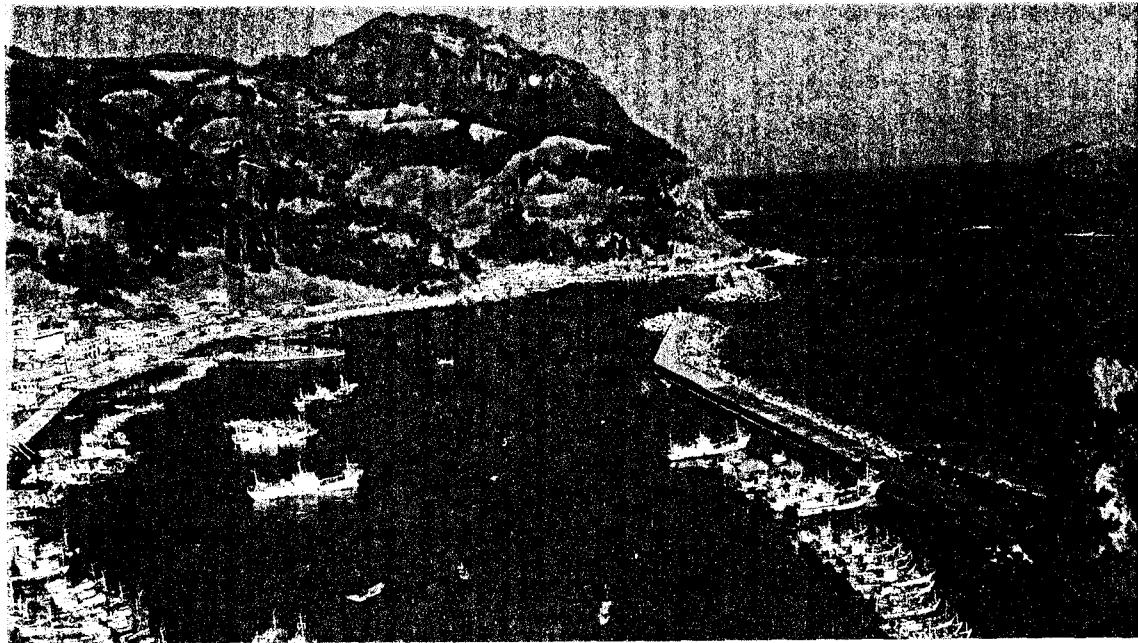
심연이 바다인 우리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연근해어업의 발달은 식생활과 한국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미치게 될 것이다.

수산업은 그동안 잡기만하는 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 전환했고 수자원 보호와 어로능률의 극대화를 도모, 우리 나라는 수산선진국으로서 발돋움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민들이 안심하고 어로작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어항이 어장 최단거리에 위치함으로써 태풍이나 황천시에 무사히 대피함으로써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의 어항이 전국적으로 많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이라야 피부에 와닿는 '이상어항'을 이야기 할 수 있겠으나 일반 상식인으로써 바라는 이상적 어항에 대하여 요약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

첫째, 선진산업사회 및 정보사회로의 발달로 이제 어업종사자 및 어항배후지 주민들도 도회지 타산업 종사자들이 누리는 문명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시설 및 Teleport system 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업종사자들이 좀더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산관계 훈련원을 설립하여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어민의 교육시설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산제조업 및 가공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수산물 및 어획물은 쉽게 부패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어항내에 수산가공시설을 확충하여 고부가가치의 수산 2차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어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민들의 가족들에게 부업의 기회도 제공, 어촌 고용기회를 늘려주게 된다.

넷째, 관광어항의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화 내지는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레저붐이 일어나고 있는 바 여름철 피서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가족단위로 여행을 여행으로 올 수 있도록 어항주변에 전전한 오락시설 및 체육시설을 구비해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겠다.

다섯째, ‘어업입국’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유력한 여행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지금도 수산청을 중심으로 잘 추진되고 있지만 주마가편의 맥락에서, 수산청에서는 어업발전장기계획을 세워 어민들이 희망과 궁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발전적인 어업상과 그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위락 및 체육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또한 열악한 작

업조건에서 발생하기 쉬운 직업병을 치료하기 위한 최신의료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배후지의 발전과 국가백년 대계를 위하여 어선의 접안이라든가 방파를 위한 단순적인 어항개발보다는 타 부문과의 조화를 이룬 복합어항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범세계적인 200해리 경제수역의 선포로 원양어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어선 및 어로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제3국과의 어로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금 최신장비를 보유한 선박을 어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조선소를 설치하여 보수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